

## [예술속으로]영화산업 지원 잔걸음 하는 경기도

신지영 기자 입력 2020-02-22 16:27:04



영화 '기생충' 스틸컷 / CJ엔터테인먼트 제공

'경기도에서 영화 기생충이 탄생할 수 있을까'

아시아를 대표하는 다큐멘터리 영화제를 12년째 개최하고 있는 경기도가 영화산업 발전을 위해 잔걸음을 하고 있다. 'DMZ국제다큐멘터리영화제'(이하 DMZ영화제)에 내실을 기하면서, 시나리오 작가 육성으로 보폭을 넓혀 영화산업의 저변을 넓히겠다는 계획이다.

21일 도에 따르면 올해로 12회째를 맞는 DMZ영화제는 지난해 11회 영화제에 모두 112개국 1천347편의 영화가 출품됐다. 지난해 상영작은 모두 151편(46개국)으로 1만 7천 명 이상의 관객이 DMZ영화제를 통해 질 높은 다큐영화를 만났다.

지난 2018년 1만6천328명이던 관객은 지난해 1만7천807명으로 10% 가까이 늘어났고, 매진 회수도 22%나 증가(2018년 37회→2019년 45회)했다. 영화제 기간 동안 작품을 상영하는 것 외에 작품 제작과 배급을 지원하는 'DMZ인더스트리' 활동도 성과를 거두고 있다.

기획·제작·배급까지 지원하며 지난해 42개 프로젝트·국내외 210명이 DMZ인더스트리에 참여했고, 그 중 한 국작품 1편과 아시아작품 2편이 해외배급 계약을 완료하는 소기의 성과도 거뒀다.

경기도는 올해 12회 영화제는 총 2만 명 관객을 목표로 삼아 DMZ영화제 준비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2년 동안 DMZ영화제 집행위원장을 맡았던 홍형숙 전 위원장이 물러난 자리는 정상진 DMZ영화제 부위원장 (옛나잇 필름 대표)이 맡는 것이 확정적이다.

정 부위원장은 지난 2011년부터 부위원장을 역임해 DMZ영화제의 속사정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는 인물 로, 영화 '남영동 1985'(2012)의 제작자이기도 하다. 기존 DMZ 영화제 외에 경기도는 다가올 한국영화 100 년을 준비하기 위해 시나리오 작가 지원에 공을 들이고 있다.

작품 활동을 하며 생계에 어려움을 겪는 시나리오 작가를 지원하기 위한 가칭 '시나리오 아카데미' 등이 검토 중인 대표적인 아이디어다. 지난 6일 영화인들을 만난 이재명 경기도지사도 "현재 상태에서 도가 할 수 있는 일을 작은 것부터 실현해 나간다면 세상이 바뀔 수 있다. 경기도가 한국 영화산업 발전을 위한 중 심 거점이 되도록 앞장서겠다"며 적극적인 지원을 약속했다.

/신지영·배재흥기자 sjy@kyeongin.com